북한매체 보도 동향

1. 농업정책

❑ 농업정책

○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(로동신문 6.11)

· 분조관리제의 생활력을 발휘할 때 농장원의 집단주의정신이 높아져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음. 경쟁이 분조의 역할을 높이는데 큰 작용을 한다는 것을 확증한 일군들은 실리있는 경쟁방법을 찾아 실천하는데 관심을 돌리고 있음.

· 또한 보여주기사업은 분조 사이의 경쟁력을 높여주는데 효과가 있음. 이에 따라 거름생산에 있어 질적수준이 높은 분조와 그렇지 못한 분조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을 동시에 조직하여 질적수준이 떨어진 분조가 앞선 단위를 따라잡기 위해 분발하도록 함.

· 분조장이 먼저 앞장서 대중을 이끌면서 농장원들에게 집단주의정신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, 분조장이 포전의 상태와 작업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노력일평가사업을 정확히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.

○ 위력한 화선식정치사업 (로동신문 6.13)

· 각지 당조직에서는 당일군을 비롯한 일군들이 김매기사업과 가뭄과의 투쟁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화선식사업을 벌려나가도록 하고 있음.

· 동림군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김매기와 가뭄과의 투쟁 현장에 나가 현장조건에 맞게 어렵고 힘든 일을 앞장서서 해결하면서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킴.

· 김책시당위원회에서는 강냉이밭후치질(옥수수 중경계초)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부림소 관리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보고 그 영양관리를 시급기관 일군들이 맡아하도록 하면서 그들이 실천적 모범을 보이도록 함.

· 함흥시당위원회에서는 공장, 기업소들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분조에 나가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도록 함.

· 온천군, 고산군당위원회에서는 방송선전차와 포전방송기재를 통한 선전사업을 잘하여 농업근로자, 지원자들이 영농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함.

○ 유기농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자 (로동신문 6.14)

· 개천시 협동농장에서 우렁이를 김잡이(김매기)에 적극 이용하고 있음.

· 지난해에 봉화, 룡진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에서 자체로 길러낸 우렁이를 이용

하여 논농사를 지어 정보당 평균 수백kg의 알곡을 더 생산하게 됨.

- 이 성과에 기초하여 시에서는 올해 농장에서 우렁이유기농법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 여기에는 종자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농장에서는 종자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.
- 일군들은 농장에서 우렁이를 확보한 현황을 매주 보고하면서 기술지도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있음. 한편 우렁이유기농법을 받아들일수 있는 적지를 바로 선정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.

○ 토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(로동신문 6.29)

- 유기농법은 토양의 지력을 높여 깨끗한 토양에서 깨끗한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 이 농법은 생태계에서 영양물질의 자연적순환에 기초한 것으로서 화학농약에 의한 토양의 오염을 비롯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 의의가 부각됨.
- 유기농법에서는 토양을 생명체, 살아있는 유기체로 봄. 토양관리는 구체적으로 보면 지력평가의 요소들인 토양의 화학적, 물리적 및 생물학적성질에 대한 관리임. 따라서 유기농법에서는 토양의 생물학적성질에 대한 관리를 기본으로 함.
- 유기농법에서 토양관리는 주로 유기질비료주기와 토양갈이를 통하여 진행됨. 유기질비료는 작물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보장해줄뿐 아니라 토양의 지력을 높여주고 토양의 구조를 개선함.
- 농업부문의 모든 단위에서는 유기농법의 요구에 맞게 토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실시해야 함.

2. 벼농사

▢ 모내기

○ 모내기를 빨리 끝낼 기세로 (로동신문 6.2)

- 함경남도에서는 매일 평균 모내기계획을 115% 이상 넘쳐 수행하고 있음. 단천시 쌍룡, 룡잠, 룡덕협동농장을 비롯한 시안의 모든 협동농장이 지난 5월 31일 현재 모내기를 끝냄.
- 당조직의 지도밑에 다른 시, 군의 협동농장에서도 모내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. 도급기관, 공장, 기업소의 일군, 근로자들이 협동농장에 나가 모내기를 지원하고 있음.
- 단천시 협동농장에서는 정성껏 키운 튼튼한 벼모를 질적으로 내면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. 영광군 협동농장에서는 기계화비중을 높여 매일 모내기실적을 150% 이상 기록하면서 앞서나가고 있음.

○ 전국적인 모내기실적 87% (로동신문 6.6)

· 농업성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6월 4일 현재 전국적인 모내기실적이 87% 계선을 넘어섬.

· 곽산군에서는 벼모를 튼튼히 키우고 기계모내기비중을 높여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도적으로 제일 먼저 끝내는 성과를 거둠. 신의주시, 박천군, 운전군을 비롯한 대다수 시, 군에서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끝냄.

· 서해곡창 황해남도 농촌에서도 모내기가 마감단계에 들어섬. 삼지강협동농장에서는 5월 24일까지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끝냈으며 안악군에서는 5월 29일까지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끝내는 성과를 거둠.

· 길주, 명간군을 비롯한 함경북도 농촌에서도 5월 말까지 모내기를 기본적으로 끝냈으며 단천시를 비롯한 함경남도의 여러 시, 군에서도 모내기가 끝남.

○ 어느 한 고리도 놓치지 않고 (로동신문 6.18)

· 강남군에서는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, 총집중하여 올해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실한 모를 키워낸데 맞게 기계화 비중을 높여 모내기를 제철에 끝내는 성과를 거둠.

· 영진협동농장에서는 군적으로 제일 먼저 모내기를 끝내고 다른 농장을 성의껏 도와주고 있음. 군에서는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낸데 맞게 김매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음.

· 군에서는 모든 농장에서 논벼의 성장에 좋은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와 후민산카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비료와 성장촉진제를 제때에 구색이 맞게 시비하기 위한 사업도 잘 추진해나가고 있음.

· 군당위원회에서는 가뭄에 대응하여 양수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물원천을 모두 찾아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 있음.

❑ 두벌농사

○ 뒤그루큰모내기에서 나서는 기술적 요구 (로동신문 6.25)

· 우선 적기를 철저히 보장해야 함. 원그루큰모는 6월 중순경에, 뒤그루큰모는 6월 하순에 내야 함.

· 모뜨기와 운반을 잘해야 함. 모판에서 모춤은 반드시 곧추세워놓아야 하며 운반할 때에는 모가 상하지 않도록 모함에 눕혀쌓아야 함. 또한 모춤을 논판에 멀리 던져 모가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.

·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정확히 보장해야 함.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큰모 모내기대수계산도표에 따라 정확히 정하여 해당 필지의 목표이삭아지수가 보장되도록 해야 함.

· 포전에서의 비료주기를 과학적으로 해야 함. 비료를 여러번 나누어주지 말고 모내기 할 때 전층과 표층에 규정된 양을 한번에 주어야 함.

3. 밭농사

❑ 강냉이

○ 강냉이밭 세벌김매기에 진입 (로동신문 6.10)

·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평안북도 안의 많은 농장에서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결속한 기세 아래 강냉이밭 두벌김매기를 끝내고 세벌김매기에 들어감.

· 동림군에서 강냉이밭 김매기를 잘 해나가고 있음. 월곡협동농장에서는 강냉이밭 두벌김매기를 제일 먼저 끝내고 세벌김매기에 진입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. 이곳에서는 부림소의 이용률을 높이면서 역량을 강냉이밭 김매기에 집중시키고 있음.

· 염주군, 운전군의 협동농장에서도 당조직 지도밑에 역량을 집중하여 강냉이밭 두벌김매기를 끝내고 세벌김매기에 들어감. 학소, 서림협동농장에서는 모살이가 시작된 포전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강냉이밭 세벌김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.

❑ 보리

○ 보리농사에서 중시한 문제 (로동신문 6.17)

· 두벌농사에서 소출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앞그루작물로 심은 보리 생육상태가 좋아야 함. 가을보리는 앞그루작물로 적합함. 겨울나이률이 높고 안전하면서도 소출이 높으며 결실이 좋음.

· 두벌농사를 위해서는 지력을 높여야 함. 해마다 두벌농사포전에 정보당 질좋은 유기질비료 30톤, 흙보산비료 5톤 이상씩 무조건 실어내어 앞그루작물의 생육에 좋은 조건이 마련됨.

· 밭관수에도 힘을 넣음. 우선 적지를 밭관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포전에 정하고 강우기관수를 위한 준비도 갖춤. 이 덕을 가뭄이 지속되던 지난 5월 보리밭에 10일정도 관수를 함으로서 봄.

· 앞그루작물가을걷이를 빨리 끝내고 뒤그루콩심기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해야 함.

4. 감자농사

❑ 감자농사

○ 감자산지를 적극 지원 (로동신문 6.10)

· 당의 감자농사방침에 따라 성, 중앙기관에서 양강도의 감자산지를 힘껏 돕고 있음.
· 대홍단군 삼덕농장 제5작업반을 찾은 최고재판소의 일군들은 영농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올해농사를 잘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해주고 있음.
· 수많은 물자를 자동차에 싣고온 대외건설지도국의 일군들은 농업근로자와 함께 감자심기를 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벌려 사기를 높여주고 있으며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마련한 많은 양의 영농물자를 농업근로자에게 넘겨주어 열의를 북돋아줌.
· 잠업비단지도국, 재정성에서도 감자산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.

○ 대규모의 감자산지건설 적극 추진 (로동신문 6.25)
·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감자산지건설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살림집과 포전도로, 돼지목장건설이 총공사량의 50%를 넘어섬.
· 백암군에서는 수백정보의 방풍림을 조성하고 수백km의 포전도로를 건설함. 또한 포전을 정리하여 영농작업을 기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.
· 혜산시와 여러 군에서는 수백동의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을 세운데 이어 지금 수백동의 살림집건설을 추진하고 있음.
· 성, 중앙기관에서는 돼지목장과 감자종자저장고, 농기구, 농기계창고를 포함한 농업생산건물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.

5. 축 산

❑ 축산동향

○ 풀판조성에 힘을 넣자 (로동신문 6.20)
· 당의 축산정책에 따라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르자면 풀판조성을 잘해야 함. 인민들의 먹는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풀판을 잘 조성하고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길러 고기를 많이 생산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함.
· 축산부문의 일군, 근로자들은 풀판조성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함. 풀이 자연적으로 자라는 지역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영양가 높은 여러 가지 풀을 많이 심고 가꾸는 방법으로 풀판을 조성해야 함.
· 풀판을 잘 조성하기 위해서는 나무그루터기까지 다 뽑아버리면서 지대정리를 하고 좋은 풀종자를 심어야 함. 바람을 막고 사태가 나지 않게 하자면 풀판을 조성할 때 나무를 띠모양으로 심어야 함.
· 땅의 지력을 높이고 한포기의 풀이라도 헛자라지 않게 비배관리에 큰 힘을 넣어야 함. 앞선 풀판조성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어느 한 지역에 본보기풀판을 만들고 일반화해야 함.

○ 더 많은 토끼를 (로동신문 6.20)

· 김책시 상평축산전문협동농장의 토끼작업반원들은 올해 더 높은 축산물 생산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풀먹는집짐승기르기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음.

· 작업반에서는 관리공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집짐승사양관리를 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· 토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마리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마리수가 늘어나는데 맞게 먹이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음.

· 작업반에서는 많은 새끼토끼를 생산하여 농장원세대에 나눠주는 성과를 이룩함.

6. 농업기반

❑ 물길공사, 저수지, 물보장 사업

○ 황해남도 물길공사건설 힘있게 지원 (로동신문 6.25)

· 전국 각지에서 황해남도 물길건설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음.

· 함경북도 도당위원회에서는 물길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짧은 기간에 권양기를 비롯한 설비와 여러 종류의 생활필수품, 후방물자를 보냄. 결과 함경북도려단에서는 맡은 대상에 대한 준비건설을 계획보다 앞당겨 끝냄.

· 자강도에서는 목재를 비롯한 많은 자재와 안전모, 장화 등의 물자를 마련하여 건설장에 보내 도안의 사기를 높임.

· 평안남도에서는 물길건설에 필요한 전동기, 변압기를 비롯한 설비와 자재, 물자를 우선적으로 보내줌. 평안북도, 황해남도에서도 물길건설을 힘있게 지원함.

7. 산림

❑ 나무심기

○ 산림조성에서 중시한 문제 (로동신문 6.4)

· 연탄군에서는 산림조성에서 무엇보다 적지적수의 원칙을 중시하여 군 여러 지역에 창성이깔나무, 잣나무, 수유나무, 비타민나무, 단나무, 혼성림 등을 조성함.

· 군에서는 산림조성실태를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기후와 토양조건에 맞게 나무를 계획적으로 심기 위한 대책을 세움.

· 또한 산림조성에 있어 나무모밭을 잘 꾸려 나무모기르기를 앞세우는 것을 중시함. 이를 위해 군안의 기관, 기업소에서는 수종이 좋은 나무 종자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앞선 나무모생산방법을 배움.

☐ 나무모 생산

○ 수많은 나무모온실을 건설 (로동신문 6.4)

·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전국적으로 근 200동의 나무모온실이 건설되어 성과를 내기 시작함으로써 나무모생산을 더욱 늘릴수 있는 전망이 열림.

· 정주시, 동림군, 평원군, 덕천시, 신양군, 룡성구역, 순안구역, 형제산구역의 일군, 기술자, 근로자들이 나무모온실적지와 면적을 실정에 맞게 정하고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필요한 설비, 도구를 갖추어놓아 해마다 많은 나무모를 생산할 수 있게 함.

· 황해남도, 황해북도, 강원도, 남포시에서도 나무모온실건설에 역량을 집중함. 정평군, 회령시, 어랑군, 연사군을 비롯한 함경남도, 함경북도, 양강도, 자강도에서도 나무모온실을 건설하여 스트로브스소나무, 이깔나무, 새로운 품종의 포플러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생산을 과학화, 집약화할 수 있게 함.

· 나무모온실에서는 나무모생산을 과학화, 집약화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나무모를 생산할 수 있음. 나무모온실에서는 적은 종자와 토지, 노동력으로 생산원가를 낮추면서도 나무모 생산기일을 앞당길 수 있음.

○ 나무모생산에 큰 힘을 (로동신문 6.26)

· 자강도에서 나무모생산의 공업화,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·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산림관리처에서는 성간군산림경영소 신청조림작업소의 나무모밭을 본보기로 꾸리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, 군산림경영소에서 나무모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짐.

· 산림관리처에서는 2년 남짓한 기간에 나무모영양단지생산공정과 태양열온실, 과학기술지식선전실, 회전식분무장치를 설치한 원형나무모재배장을 설립함. 또한 나무모밭에 자연흐름식관수시설을 갖추어놓고 수백 톤의 질좋은 유기질거름도 생산함.

· 시, 군산림경영소에서는 푸른 숲은 나무모생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키면서 나무모생산을 늘리도록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8. 기타 작물

☐ 유채

○ 유채농사를 잘하여 먹는 기름을 더 많이 (로동신문 6.17)

· 강령군에서는 현재 가을유채와 봄유채를 다같이 재배하고 있음. 뒤그루농사의 경우 지난해 가을에 심은 유채를 6월에 수확한 다음 그 포전에 사이그루재배방법으로 강냉이와 콩을 심음.

· 올해 봄에 심은 유채는 7월 초에 수확을 하고 뒤그루로 들깨와 남새, 감자를 심음.

· 유채를 심어 기름은 기름대로 생산하면서 알곡과 남새작물을 심어 소출을 낼 수 있

는 이 경험은 두벌농사방침의 정당성을 증명함.

9. 기타 보도 동향

❑ 비료, 거름

○ 보통강 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서 (로동신문 6.24)

· 평양시에 새로 건설된 보통강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서 더 많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음.

· 공장에서는 모내기철에 많은 유기질비료와 유기질복합비료를 생산보장한데 이어 가을남새생산에 필요한 유기질비료생산에 힘을 집중하고 있음.

· 얼마전 공장에서는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생산기지를 건립하고 생산에 들어감. 현재 여기서 생산되는 복합비료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.

· 공장에서는 유리한 생산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더 많은 유기질비료와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를 생산하여 농장에 보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❑ 가뭄

○ 가뭄과의 투쟁에서 한사람같이 (로동신문 6.12)

· 배천군에서는 가뭄과의 투쟁을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음.

·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기상조건에 맞게 가뭄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· 군에서는 물원천을 최대한 찾아내며 강우기, 양수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세우고 있음. 농장에서는 물원천이 마련되는게 맞게 강우기를 비롯한 관수설비의 이용률을 높이고 있음.

· 군 협동농장에서는 강냉이밭김매기와 북주기를 질적으로 하여 토양의 물기증발을 줄이도록 하고 물길가시기(수로 청소작업)도 책임적으로 하여 한방울의 물도 제대로 쓰이도록 하고 있음.

○ 가뭄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역량 집중 (로동신문 6.13)

·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가뭄과의 투쟁이 시작된 지난 5월 하순부터 도적으로 매일 수십만명의 근로자들이 관수설비를 수리정비하고 물주기를 함으로써 많은 면적의 밭에서 가뭄피해를 막음.

· 지난 5월 하순 도당위원회에서는 가뭄피해를 이미 받았거나 받을수 있는 면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 사업에 농장원만이 아니라 노동자, 사무원, 가두인민반원들까지 나서도록 사업을 추진함.

· 특히 물기증발이 적은 아침과 저녁 시간에 노동력을 집중하여 가뭄피해가 심한 포

전부터 물을 주도록 사업을 실시하여 5월 23일 하루동안에만도 도적으로 수십만명이 동원되어 수천정보의 감자, 강냉이, 밀, 보리, 남새포전에 물주기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둠.

○ 방울식 관수가 성과를 낸다 (로동신문 6.24)

·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는 현대적인 방울식관수설비를 만가동시켜 물주기를 함으로써 과일나무밭에서 가뭄피해를 막고 있음.

· 방울식관수는 작은 구멍이 뚫린 관을 땅위로 늘리고 매 과일나무마다에 물을 주는 방법임. 한 개의 작은 구멍에서 시간당 2L의 물방울이 떨어지는 이 시설은 물낭비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효과가 높음.

· 농장에서는 방울식관수체계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설비에 대한 정비와 물잡이, 물길가시기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매일 작업상태를 설명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움.

· 농장일군들은 과일나무밭에 물을 넉넉히 댈 수 있도록 수천m 구간의 물길가시기도 해놓아 애써 키운 과일나무가 가뭄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춤.